

서울정책포커스

2007. 5. 21 제26호

서울 내 외국인 문화 활성화 방안

김은미(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목 차 >

요약

1. 들어가는 말
2. 외국인 거주 및 문화지역 관련 연구동향
3. 서울 내 외국인 마을
4. 정책제언

요 약

지난 10년간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1994년 95,778명에서 2006년 536,627명에 이르렀다. '세계 일류 도시'를 지향하는 수도 서울은 한국거주 외국인 인구의 30% 이상이 살고 있는 국제도시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문화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서울이 국제화되어 감에 따라 서울 내 다문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좀더 올바른 다문화적인 정보 즉, 한국의 특성에 맞으면서 교육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발까지 가능한 정보의 발굴이 절실하다.

서울에는 이미 많은 외국인 공동체(communitiy)가 있다. 이들 외국인 공동체는 주거 지역, 상권, 종교시설, 교육시설 등을 매개로 한 주거복합형 마을에서부터, 일시적으로 생겨났다 사라짐을 반복하는 문화마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과 구청 등 관련 기관의 협조 속에서 서울의 문화공간으로 이미 알려져 있으나, 일부는 폐쇄적인 문화와 언어체계, 지역 사회와의 소통 채널의 부재로 격리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서울의 다양한 외국인 문화를 '생산적인' 한국의 문화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의 제고 등을 위시한 국가 차원의 정책이 검토되어야 하나, 그 이전에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서구 사회의 이민정책과는 다른 한국 사회에 맞는 단계적인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그에 따르는 세부 정책실행을 통해 외국인 문화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발굴 및 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은 문화적 다양성을 관광자원화하고 서울의 다양한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서울의 다양성을 정보화하여 전체 시민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화 마을의 역사 및 한국 사회와의 관계, 문화적 자산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 세계화의 큰 조류는 개별 국가, 개별 도시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세계화가 전개되고 있음. 특히, '세계 일류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은 한국거주 외국인 인구의 30% 이상이 살고 있으며, 이들의 출신국 역시 공식 집계된 자료만 해도 40여 개국에 이르는 세계인이 함께 사는 국제도시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국인이나 서울시민이 외국인과 외국문화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 '단일민족 국가관'에 비해 크게 바뀌지 않은 점에 주목해야 함. 외국의 문물이나 새로운 문명에 대해 끊임없이 자극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거주 외국인을 서울의 '시민'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고민할 시점임.
- 점점 다양화되고 복잡해지는 사회 안에서 문화적 무지로 다양성이 문제될 때, 최근 프랑스와 호주에 있었던 일련의 인종 간, 민족 간 갈등 표출이 한국 사회에서도 가시화될 수 있음.
- 서울을 포함한 한국 내 다문화에 대한 교육과 홍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좀더 올바른 다문화적인 정보 즉, 한국의 특성에 맞으면서 교육현장에 현실감 있게 적용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과정의 개발까지 가능한 정보의 발굴이 절실하다는 측면에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시점임.
-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민족 간의 화합, 평화, 공동번영을 위한 '한국적 세계화'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시도로, 유용한 정보 수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시도되는 연구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거주지역과 문화공간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외

국도시의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정책의 사례를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았음. 이를 바탕으로 서울 각 지역에 분포된 다양한 외국인 마을(조선족 마을, 화교마을, 일본마을, 프랑스마을, 이탈리아마을, 몽골마을, 필리핀마을, 이슬람마을 등 총 9개 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발굴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그 형성과정과 활성화에 대한 관찰과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2. 외국인 거주 및 문화 지역 관련 연구동향

○ 선행연구

- 외국인 거주지에 관한 국내연구는 화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거주지의 역사적 형성과정, 외국인들의 거주실태, 또한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문제나 외국인 임대주택 등에 집중되어 있음.
-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이민국가 내에서 민족성에 관한 정의와 범주 설정, 특정 인종 집단의 거주지 선택이나 공간적, 경제적인 의미의 거주지 격리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있어 왔음.
-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기존 도시 또는 한국과 같은 단일민족 도시에서 '분리'되어 살아가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감을 전제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동기를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외국인의 문화와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규명하거나,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정책을 다루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해외도시 사례분석

- 대부분의 다문화 정책은 이민국가의 정책적인 틀 안에서 논의됨. 본 연구에서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소수민족의 문화를 보호하고 장려하고

있는 대표적인 해외도시 사례로 호주의 멜버른과 캐나다의 토론토를 상정함.

- 호주는 중앙정부 내에 '이민 다문화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종차별 금지, 관공서에 상주하는 '소수민족연락관' 제도 도입 등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유지하고 장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 중 멜버른은 호주 다문화 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참여·축제·지원·정부의 리더십 등의 다문화 원칙을 확립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발굴·개발'하고 새로운 문화마을의 생성과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하고 있음.
- '모자이크 국가'인 캐나다는 서로 다른 인종과 종족 집단들의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양식 등을 존중하는 관용적인 자세, 모든 개인들이 민족, 인종, 국적,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회균등의 보장 등의 사회적 이념을 확립하여 캐나다 사회의 '다양성 속의 통일(Unity in Diversity)'을 뒷받침하고 있음.
- 전 세계적인 다문화도시로서 토론토는 도시가 갖고 있는 다양성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사회 관련단체들을 지원하고 소수문화를 알리는 축제를 정부-기업-지역사회의 협력 하에 추진하고 있음. 동시에 시 정부가 음식과 축제 중심이 아닌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두어, 행정 서비스의 제공자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장려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3. 서울 내 외국인 마을

- 본 연구에서 발굴된 총 9개 외국인 마을의 사례를 살펴보고, 외국인 마을의 주요 구성 요소를 파악함. 기존 자생하고 있는 외국인 마을 10여 곳 중, 문화적 색채가 강하고, 그 문화와 인구의 다수를 포함할 수 있는 마을 9곳을

선정하고 방문하여 관찰 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서울 내 외국인 마을들

- 조선족마을(엔벤거리: 구로구 가리봉동)

마을을 이루는 외국인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집단으로 구로동과 가리봉동 일대에 집중거주지역을 형성하고 있음. 500m 정도의 골목을 따라 상권이 발달해 있으며, 한국어와 중국어를 혼용함.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불법 체류 인구가 다수 존재하고 '외국인 → 외국인' 상권이 형성되면서 주변과 격리되는 형상이 나타나고 있음.

- 이슬람마을(이슬람성원: 용산구 이태원동)

이슬람교 예배가 시작되는 금요일 오후에서 주말 동안 한시적으로 외국인 이슬람교도들이 성원주변으로 모여면서, 이슬람 관련 상권이 형성되는(한국인 · 외국인 → 한국인 · 외국인) 전형적인 문화마을의 형태를 띠고 있음. 사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려는 개방적인 문화적 특징을 보임.

- 화교마을 1(리틀 차이나타운: 서대문구 연희동, 마포구 연남동)

서대문구 연희동 한성 화교 중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교육시설을 둘러싸고 자연스럽게 거주단지가 형성된 지역임. 요식업을 중심으로 화교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외국인 → 한국인 · 외국인 · 관광객'의 상권구성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주거복합형 마을의 모습을 보임.

- 프랑스마을(서래마을: 서초구 방배동, 반포4동)

프랑스 외국인 학교를 둘러싸고 주거 및 상업지역이 형성됨. '한국인 → 한국인 · 외국인' 상권을 형성하면서 지역사회와 소통의 통로를 확보하였으며,

불어 서비스 등을 비롯하여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각종 문화 이벤트 및 행정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일본마을(리틀 도쿄: 용산구 이촌1동)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인 거주지역으로 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종교시설, 상권이 두루 갖추어진 주거복합형 마을의 대표적인 예임. 거의 모든 시설에서 일본어의 통용이 가능하고 일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의 민족성과 맞물려 외형상으로는 이국적인 특징을 발견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공간 자체의 문화적 공유는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몽고마을(몽골 타워: 동대문구 광희동 벌우물길)

‘서울에 떠 있는 몽골섬’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음. 키릴문자지역 중에서도 몽골타워 내에서는 한국어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주말이면 서울 인근 지역의 몽골인들이 모여들어 정보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외국인 → 외국인’ 상권을 형성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는 상권중심의 강력한 문화마을을 형성하고 있음.

- 화교마을 2(중화 거리: 중구 명동 중국대사관 앞)

중국 대사관 앞 한국 한성 화교 소학교 주변의 화교 상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마을임. 엔벤거리 및 조선족 밀집지역 등이 생겨나면서 상품의 거래가 활발한 편은 아니나, 오히려 중국인 문화 공동체의 역할과 함께 한국인이 도심 한 복판에서 ‘중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개방적이면서도 강력한 문화적 색채를 띠고 있음.

- 이탈리아마을(클럽 이탈리아: 용산구 한남동 Francisco 성당)

거주 외국인의 수가 적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종교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문화마을을 형성하고 있음. 매주 일요일 모이는 성당과 이 성당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여 이탈리아 문화원과 공조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주도하고 있음. 다른 문화 마을과 달리 거주지나 상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소수의 인원이 ‘클럽’ 형태의 개방적인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스스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자국 문화원과 함께 한국 사회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 필리핀마을(일요장터: 종로구 혜화동 혜화동성당 앞)

매주 일요일 혜화동 성당 앞에서 ‘작은 마닐라’를 형성하고 있음. 강력한 종교적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트럭 노점상들이 필리핀 관련 제품을 판매하면서 종교와 상권이 결합하고 있어, 이슬람마을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지역사회와 소통 채널이 없는 특성 상 ‘외국인 → 외국인’ 형태의 폐쇄적이고 임시적인 상권을 구성하고 있음.

○ 외국인 마을의 주요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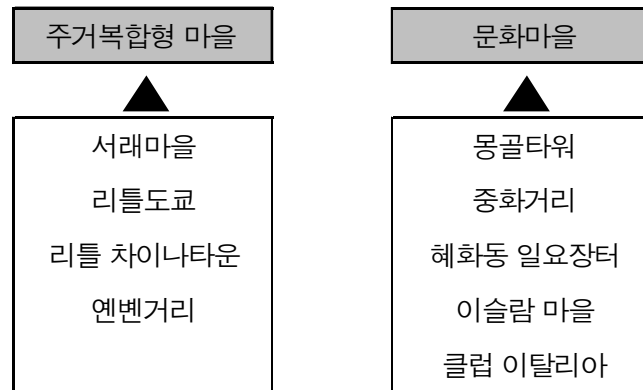
- 9개의 주거형 마을과 문화마을을 관찰한 결과 외국인 마을을 구성하는 공통적인 요소는 크게 주거공간, 상권, 종교, 교육시설의 4가지였음(<표 1> 참조).
- 주거지역과 문화향유체계가 같을 경우 가시적인 ‘마을’을 형성할 수 있지만, 체류신분이나 종교에 따라 주거와 문화체계가 분리된 경우는 ‘눈에 보이는 마을’이 아닌 ‘특정 시간동안 생겼다 사라지는’, 그러나 문화체계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마을이 형성되고 있음(이슬람마을, 이탈리아마을, 필리핀마을).

<표 1> 외국인 마을의 결합요소

	마을	소재지 (동/구)	외국인· 문화권	집중거주	상권	종교	교육시설
1	엔벤거리	가리봉동 /구로구	조선족	⊙	⊙		
2	이슬람마을	이태원동 /용산구	이슬람		⊙	⊙	
3	리틀 차이나타운	연희동 /서대문구	화교	⊙	⊙		⊙
4	서래 마을	반포동 /서초구	프랑스	⊙	⊙		⊙
5	리틀 도쿄	이촌 1동 /용산구	일본	⊙	⊙		⊙
6	몽골 타워	광희동 /동대문구	몽골		⊙		
7	중화 거리	명동 /중구	화교 중국		⊙		
8	클럽 이탈리아	한남동 /용산구	이탈리아			⊙	⊙
9	필리핀 일요 장터	해화동 /종로구	필리핀		⊙	⊙	

- 상권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이 아닌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 문화마을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임. 문화를 향유하는 언어체계, 공통된 관심사, 문화공유의 방식과 연관되어 문화마을의 특성을 좌우하며, 상권의 폐쇄성은 한국 사회와의 소통 정도를 말해주는 지표가 됨.
- 종교는 문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기도 하나 외국인에게는 종교활동 공간 자체가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음. 이슬람교의 예를 보면 예배시간을 전후로 일시적이지만 대규모의 문화마을이 생겼다 사라짐을 반복하고 있음.
- 교육시설은 개별 문화권의 문화적 정체성과 언어체계를 재교육하는 공간으로서 의미도 있으나, 인구구성과 연관되어 집중주거지역을 만들어 그 자체가 문화공간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함(프랑스마을, 화교마을 1).

○ 외국인 마을의 형태와 특징((그림 1) 참조)



[그림 1] 외국인 마을의 형태

- 주거복합형 마을은 주거와 문화향유체계가 공동체 안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마을'을 형성함. 대체로 한국인에게도 잘 알려진 공간으로,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고 타국의 정통음식을 맛볼 수 있으며, 그 나라의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 엔벤거리를 제외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구청과의 협조체계가 형성되어 외국인 마을에 대한 구청의 지원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 엔벤거리의 경우는 최근 도심 재개발 열풍, 불법체류자 단속, 공단 주변의 낙후된 시설 등으로 인해 지역 사회에서 격리되어 가고 있음.
- 문화마을은 주거가 배제되면서 문화향유체계만 존재하는 마을로 단순상권이나 종교를 매개로 일정시간 동안 생겼다가 사라지는 형태를 보임. 물건을 사고팔거나 종교의식을 통해 동일한 언어를 유지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가상의 문화공간을 만들고 있음.
- 언어 차이와 불법체류 여부에 따라 폐쇄성을 보이는 곳(몽골, 필리핀)도 있으며, 반대로 한국 사회와 소통하면서 개방적이어서 한국인들이 그 문화를

즐기기 위해 찾는 공간(이슬람, 중국)이 되기도 함.

- 이미 서울 안에는 다양한 외국인 마을이 있고 그 알려짐의 정도는 차이가 있으나, 마을 내부의 문화는 서울의 문화적 다양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따라서 서울이 국제적인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문화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파악해야 할 시점임.

4. 정책제언

○ 다문화 정책의 목표 확립

- 미국식 문화 다원주의에서 캐나다나 호주와 같은 다문화주의까지 다문화 정책의 다양한 스펙트럼 가운데 한국사회에 적절한 다문화정책의 목표를 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표 2> 참조).

<표 2> 다문화 정책의 방향: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

	문화 다원주의	다문화주의
시행	미국	캐나다·호주
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사회 인정 - 주류사회의 포용 중심 - 다양한 인종/종교/문화 유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사회 인정 - 다양한 인종/종교/문화 간의 평등한 발전지원 - 사회적 소통중심
실행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방임적 접근 - 주류언어/문화 교육기관 지원 - 다양성 가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문화행사 재정 및 홍보 지원 - 다문화 교육 - 언어/문화 서비스 제공: 언어의 다양성 보존 가능 및 이후 이민자 정착에 활용 - 공무원의 다문화 교육 - 관광자원화

- 강력한 주류사회가 존재하는 한국 사회와 오랜 역사의 이민정책을 취하고 있는 국가들과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이 달라야 함.

- 주류사회를 인정하고 주류사회 안에서 외국인 문화가 성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식 접근이 필요하나, 한국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차별과 이중적인 잣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정부정책의 개입이 필요함. <표 3>과 같이 단계적으로 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 3> ‘글로벌 서울’을 위한 3단계 정책접근

	정책목표	구체적 정책사업
1단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마을의 육성 ■ 문화 이벤트 발굴 및 지원 ■ 외국인 마을의 정착을 위한 공간 확보
2단계	다양성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한국인에 대한 다문화교육 자료 구축 ■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3단계	외국인의 주류사회와의 문화적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체계 구축 ■ 외국인에 대한 행정지원체제 구축 ■ 외국인 학교에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지원

-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이민국가인 한국 사회에서 이미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문화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리고 홍보하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임. 이는 개별 문화 이벤트를 육성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가능함.
- 개별 이벤트를 통해 다문화 인식이 확산되면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는 방식과 편견이나 차별 없이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고 ‘서울의 문화’로 흡수하기 위한 다양성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동시에 주류사회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기관을 지원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소통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주류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함.

○ 외국인 마을의 발굴과 지원: 홍보 및 관광자원화

- 일본마을, 프랑스마을만이 구청 홈페이지에 '가볼만한 곳' 또는 '우리 구의 명소'로 소개되어 있음. 화교마을이나 조선족마을 역시 주거복합형 마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홍보는 부재함. 이는 선진국의 문화공간만을 인정하고 발전시키려는 태도의 발현으로 볼 수 있음. 미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인종적 다양성이나 문화 공동체를 관광자원화하여 홍보하고 있는 것과 대비됨.
-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에게 자국의 문화공간을 소개함과 동시에 서울 안에 있는 이국적인 문화를 가상여행(virtual tour)을 통해 체험할 수 있게 함. 특히 서울의 새로운 모토인 'Soul of Asia'의 테마를 살리는 조선족마을, 화교마을, 필리핀마을, 몽골마을 등에 대한 관광자원화를 시도해야 함.
- 각종 종교를 바탕으로 한 문화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인 도시의 문화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이슬람 마을과 같은 문화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 상권형성과 관련하여 민속음식(ethnic food)을 취급하는 음식점이나 문화상품을 취급하는 상점을 지원하고 그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게 함으로써 상권과 문화가 공존할 수 있게 함. 음식문화 축제 등 문화 마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활용한 다양한 이벤트들을 활성화하여 이를 홍보하고 관광자원화함.

○ 다문화 교육자료 구축

- 급증하는 국제결혼과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야 하는 혼혈 인구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다문화 교육임.

- 서구 사회에서 일어난 민족적, 문화적 갈등에서 기인한 많은 사건들은 외국인 거주지역 및 문화공간에 대한 발굴과 지원이 관광을 넘어 '다문화 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각 문화마을에 다문화 교육센터를 만들어 각급학교를 중심으로 한 현장 탐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함. 이와 함께 문화 마을의 역사 및 한국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한국 사회가 받아들여야 할 문화적 자산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맞춤 학습프로그램의 개발이 있어야 함.
- 주5일 근무시대를 맞이하여 서울의 이국적인 공간 또는 다문화적인 공간을 홍보함으로써 주말을 이용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정 내 다문화 교육이 되도록 하며, 영어마을이나 기타의 문화체험 공간과 연계하는 방안 역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

김은미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02-3277-3669
emkim@ewha.ac.kr